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건축공학과	학 번	201**556	성 명	박유진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하일브론	파견학기	2015년 2학기
소요경비	1300만원 (비행기 값 포함)				
주거	Flat생활 Rethelstr.4, Heilbronn, Deutschland 매달 300유로 (보증금은 매 경우마다 다름 - 저는 안냈어요)				
룸메이트	대한민국 1명				
기숙사 내 한국인	울산대2명(4명 중), 경북대2명(3명 중), 금오공대1명(5명 1명)				
파견대학 정보	하일브론이 규모에 비해 부유한 도시라, 도시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 캠퍼스를 꾸준히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친절하시지만, 한국이름을 못 읽습니다. 제이름을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알파벳을 읽는 방법이 영국과 달라서 그정도는 익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말 및 여가활동	맥주가 싸고 맛있어서 매일 밤마다 맥주 먹었고, 매주 마다 파티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밥도 만들어 먹고 합니다. 매주 2 회 정도 축구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근교나 근처 나라 여행 다녔어요.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없어졌대요				
전공	저는 건축학과이지만 건축과 수업이 없어, 경영학과로 지원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전공을 영어로 들어야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제 경영과, 관광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수업 스케줄	인텐시브라 해서 한 주에 끝내거나 며칠만 하고 끝내는 수업이 많아 일주일에 2일~3일 학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어 e-learnig이 있어 독일어관련 학점을 2과목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할인해주거나, 공짜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ISIC카드 활용	파견 학교 학생증이 나오기 전에 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 위에 말씀드린 할인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학생증이 나오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영어공부	"영어공부는 가서 하는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한다는 건 오산일 것입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됨은 물론이고, 과제 또한 영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제가 거의 조별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높지 않은 영어 점수로 파견될 시, 꼭! 영어공부를 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영국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유럽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영국식 영어를 배웁니다. 미국역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국식 역양을 좀 익혀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13개국 50개 도시 다녀왔습니다. www.busradar.com 이라는 독일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시 간 또는 나라간 기차나 버스가격을 쉽게 비교하여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겨울학기일 경우, 12월 중순에서 1월초 까지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ersmus(유럽 교환학생들)이 고향으로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1명-3명 정도 여행을 하실 땐, 버스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4-5명일 경우 독일 국내 여행을 하실 때 독일기차(DB)를 이용하시면, 그룹티켓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E나 IC와 같은 고속열차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차의 경우 일찍 표를 예매하시면 special price로 훨씬 더 싼가격에 예매하실 수 있지만, 환불이 안 된다는점!!!
교통	하일브론에서는 트램(지상철), 버스 주로 이용했고(지하철 없습니다). 택시는 정말 비쌉니다. 참고로 여기는 보통 콜택시로 운영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도시에서 제매스터 티켓 줍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시면 버스, 트램, 기차(어느 범위까지만) 공짜로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학생일 경우 티켓 확인을 잘하지 않지만, 트램과 기차는 티켓확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날씨	여름에는 햇빛이 많다고 하던데, 겨울엔 햇빛보기가 힘듭니다. 우울증 올지도 몰라요.. ㅠ ㅠ ㅠ
해외인턴	수업 시간에 가끔 회사들이 와서 홍보하더라구요. 하지만 독일어가 필수이거나 영어를 엄청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추신	독일은 인건비가 비싼 반면,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유제품(치즈, 생크림, 우유,

	요거트 등)과 과일, 식재료, 맥주, 물 이 싹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물은 맥주보다 비싸고, 맥주도 엄청 비쌉니다.
보완점	기숙사 들어가기가 힘들어요...